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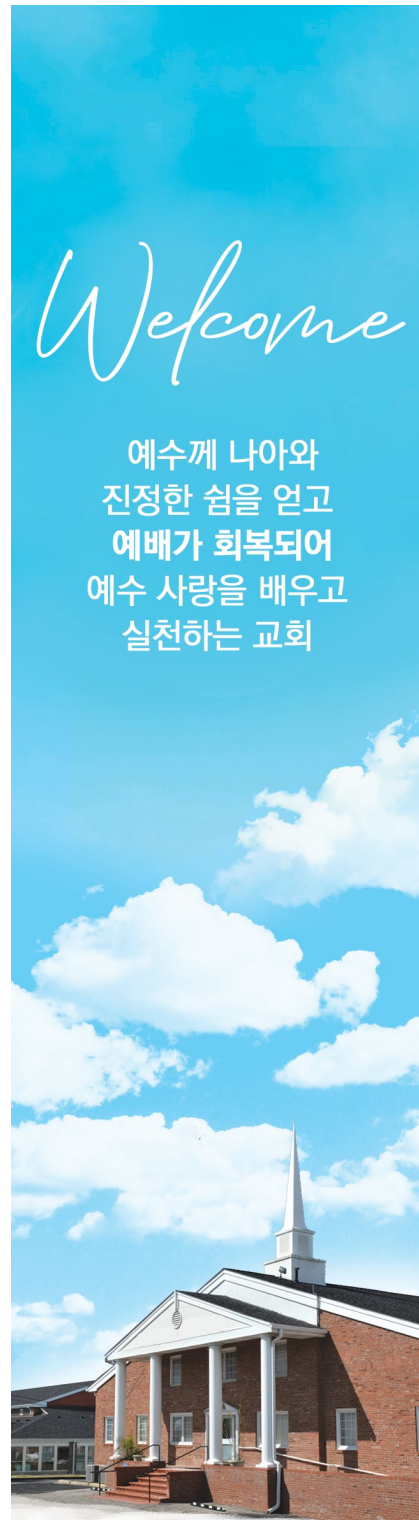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 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 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8.20.2023

바벨론의 평안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Isaiah 55
참회의 기도	미가 Micah 7:19
찬송	찬 29장 성도여 다 함께 다같이
기도	윤순화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예레미야 Jeremiah 29:4-11, OT p 1096
말씀	바벨론의 평안 / 강원용 목사
Sermon	The Peace in Babylon
*결단의 찬양	찬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같이
* 축도	강원용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각자가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2)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은 죄를 무지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이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이 죽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공식적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짜 죄 사함 받았느냐?" 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 세상 마지막, 혹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용서함 받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희미한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1.사죄의 필요성

우리는 왜 사죄를 믿어야 할까요? '죄 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1)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 개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3:23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27)

계속해서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 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8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35

2. 성찬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

이와 같은 교제의 양 측면, 예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는 ‘성찬’이라는 기독교 예식에 잘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의 예식, 즉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천주교는 일곱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성찬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둘째,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나눠 먹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잘 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3. 거룩한 공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공교회란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를 뜻합니다. 이는 그대로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보화를 남에게 유익과 복이 되게 나눠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는 성도()라는 단어의 ‘성()’과 관련됩니다. 거룩한 백성들, 즉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곧 거룩한 공교회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찬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물어봅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치고 기도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지를 점검하고 반성해 보셨습니까?

<제19과 사죄를 믿습니다> 에베소서 1:7

*들어가면서

사죄, 죄 사함, 이 조항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하죠?

이 구절의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숲을 살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Isaiah 55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뻐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소명자의 사명: 처녀 딸 이스라엘(1), 렘31:4-22

< 본문 속으로 >

설교를 듣고 요약해 보세요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백영희 집사님 딸 엘리슨: 두 번의 턱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신웅 전도사님: 뇌에 Hematoma 수술후 회복 중입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소 망 소 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8/20		8/27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전세환 장로	교회 안내	최미진 집사
통역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김예람,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독수리구역	애찬 담당	소망학교
교회 청소	칠레 구역 (8월)	교회 청소	칠레 구역 (8월)

향기로운 예물 8/13/2023

주일	\$1,055	건축	\$0	주일학교/유스	\$105
십일조	\$3,490	첫열매	\$0		
감사	\$670				
선교	\$0				
구역선교	\$120			현금총액	\$5,440.00

현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5,440.00

교회현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AWANA

‘어린이들을 위한 AWANA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7).”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성경 말씀 암송 훈련’인 AWANA를 우리 수요일예배와 맞추어 함께 시작합니다.

(1) 대상: Preschool ~ 5th Grader

(2) 기간: 8/23/2023 (수) ~ 5/22/2024 (수) @7PM

(3) 장소: 한인소망교회 아가페홀

(4) 등록비: \$20 (둘째 아이는 \$10)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2. 수요일예배

8월23일(수)부터 수요일예배를 7PM에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예배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예배드려요.

3. 설교 말씀

오늘은 강원용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성찬식

다음 주일(8/27)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 호 형제님

김세종 (이미션 집사) 집사님 가정(처제: 이미강, 조카: 박지윤)

기도구역 칠레 구역(백형수 장로 임춘남 권사)과 황신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이창진 (성혜선 권사) 장로님 가정과 건강회복과 사업체 위해서

교회행사

8월 23일 (수)



수요일예배 시작
@7 PM

8월 27일 (주)

성찬식